



박소현의 섹.시.토크

A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차가 된 전업주부다. 아이는 3살이고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관계를 나름 만족하며, 남편도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도 벌써 삼 년쯤 되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고릴라였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요조숙녀 싫어하는 남자 없어. 특히 밤에는 더 순진한 척, 순수한 척 해야 남편이 싫증을 덜 내는 법이야.”

자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남편 앞에서 훌렁훌렁 옷을 벗는대거나 벗은 몸을 드러내고 돌아다

끄러운 척했다. 그리고 막상 본게임에서는 친구 말대로 파르르 떨면서 누워만 있었다. 잠자리가 끝났을 때 A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땠어?”

“뭘 어때? 똑같지. 피곤해, 자자.”

내가 요조숙녀 흉내를 잘못 낸 건지, 아니면 남편이 요조숙녀에겐 흥미가 없는지 그건 잘 모



A는 남편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신혼 1년만 뜨겁고 그 이후에는 다들 시들해진 채, 열정 없이 정에 기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십년 만에 여고 동창회에 나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다들 하나같이 남편과 좋아서 죽고 못 산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재주로 나이 사십 줄에 다다라 TV 보는 것 말고는 나이 없는 남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는지 궁금했다. A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비결을 캐 보기로 했다.

“우리 남편은 지금도 내가 열 아홉살 여고생 같고 내 앞에 서면 자기도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대.”

“철이 없다는 소린가?” 싶었는데 친구가 덧붙인다.

“내가 지금도 신비스럽다는 말이지.”

닌 적이 없단다. 밤에도 꼭 첫 경험하는 여자처럼 파르르 떨고만 있단다. 그래서 남편이 좋아 죽는단다. 정리하면 대략 이런 말이었다.

A는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 그대로 실행해 보기로 했다. 그리 자주 하지도 않는 잠자리가 드디어 도래한 날, A는 어슬픈 요조숙녀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옷을 벗는 동안 기만히 누워만 있다가 예수가 시작되자 몸을 배배 꼬면서 부

요조숙녀도 화끈녀도 열정없는 잠자리 한결같은 남편 “똑같지. 피곤해, 자자”

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방법이 성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음날, 옆 동사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친구는 대변에 이렇게 말한다.

“누가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웬 요조숙녀 흉내? 그런 여자 남편들은 겉으로는 맞춰줘도 속으로는 싫어해. 그거보다 차라리 화끈녀가 훨씬 낫지.”

요조숙녀와 화끈녀

“화끈녀는 또 뭐야?” “침대에서 화끈한 여자 말하는 거지 뭐. 남자는 내숭떠는 여자보다는 적극적인 여자를 더 좋아해. 우리가 지금도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건 다 내가 화끈하게 리드하기 때문이려구.”

듣고 보니 또 그랬다. A는 이번엔 화끈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화끈녀 행동방향을 소상히 전수받았다. 화끈하게 리드하려면 남편이 다가오길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싶어 그날 밤 A는 남편을 덮쳤다.

평소에는 분위기 다 만들어놔야 잠자리가 가능했던 여자가, 그것도 어제는 꼭 나무토막같이 굴던 여자가, 갑자기 옷을 벗고 담바니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다. 안하던 여성상위체위까지 시도하고 소리까지 질러댔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스가 끝난 뒤 어쩔나고 묻는 A에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뭘 어때? 똑같지. 피곤해, 자자.”

A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여고동창도 옆동 친구도 사실은 자기랑 비슷한 잠자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남편 앞에서 뜨거운 척하는 애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앞으로 40년, 그냥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남들 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어쩔지 마음이 편해져 A는 오랜 만에 숙면을 취했다.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KBS아나운서 박지은.

검색절정 키워드

‘설마... 설마...’

지난 주 4모녀 살인 사건에 이어 이어 이번 주에는 실종 학생들의 암매장 사건이 인터넷 세상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실종됐던 예슬, 혜진양이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늘 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어린 학생들의 시신은 토막 난 채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예슬·혜진아 미안해”

결백을 주장하던 정씨의 범행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네티즌은 “정말 요즘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무서운 세상이다.” “누가 암매장 됐네. 사체가 발견됐네. 뉴스 보기가 무섭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어른으로서 예슬, 혜진양에게 정말 미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나운서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광적인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아나운서 박지은

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박지은 아나운서와 사내 커플로 유명한 박동석 아나운서도 덩달아 관심을 끌었다.

자유 선진당의 신은경 전 아나운서는 남편인 한나라당의 박성범 전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대신 서울 중구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전 대변인과의 대결이 예상되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바둑협회 연구생 리그전. A Go board diagram showing a game in progress with numbered stones (1-14) and a 13th move indicated.

지역 연구생 리그전 1보(1~14). White: 강지수 (문성중 2), Black: 임지성 5단 (동일전자공고 2). Text describing the match and the players' records.

바둑소식. 구리 천원전 6연패 시동. 중국 프로바둑 랭킹 1위인 구리 9단이 제22기 중국천원전 6연패의 시동을 걸었다. 구리는 19일 중국 베이징교통호텔에서 벌어진 이 대회 도전 1국에서 도전자 저우허양 9단을 맞아 210수만에 백불계승을 거뒀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음 2월 14일 庚申). 운세 table with columns for animal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s.

더마플라스트 밴드. Advertisement for a skin treatment product with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English: How do you want your steak? 2. Japanese: それが流行(りゅうこう)みたいです。 3. Chinese: 你喝茶嗎? 4. Korean: 天方地軸(천방지축) 하는 천, 모방, 땅 지, 굴대 축.